



# 고향강산

6

주체107(2018)  
루게 제346호 월간

# 조선의 모습

작사 김정훈  
작곡 엄하진

보통속도로 긍지를 가지고



1. 꽃 바 다 로 설 레 이 - 네                      하 나 의 마 - 음



해 불 되 여 타 오 르 - 네                      하 나 의 - 신 - 념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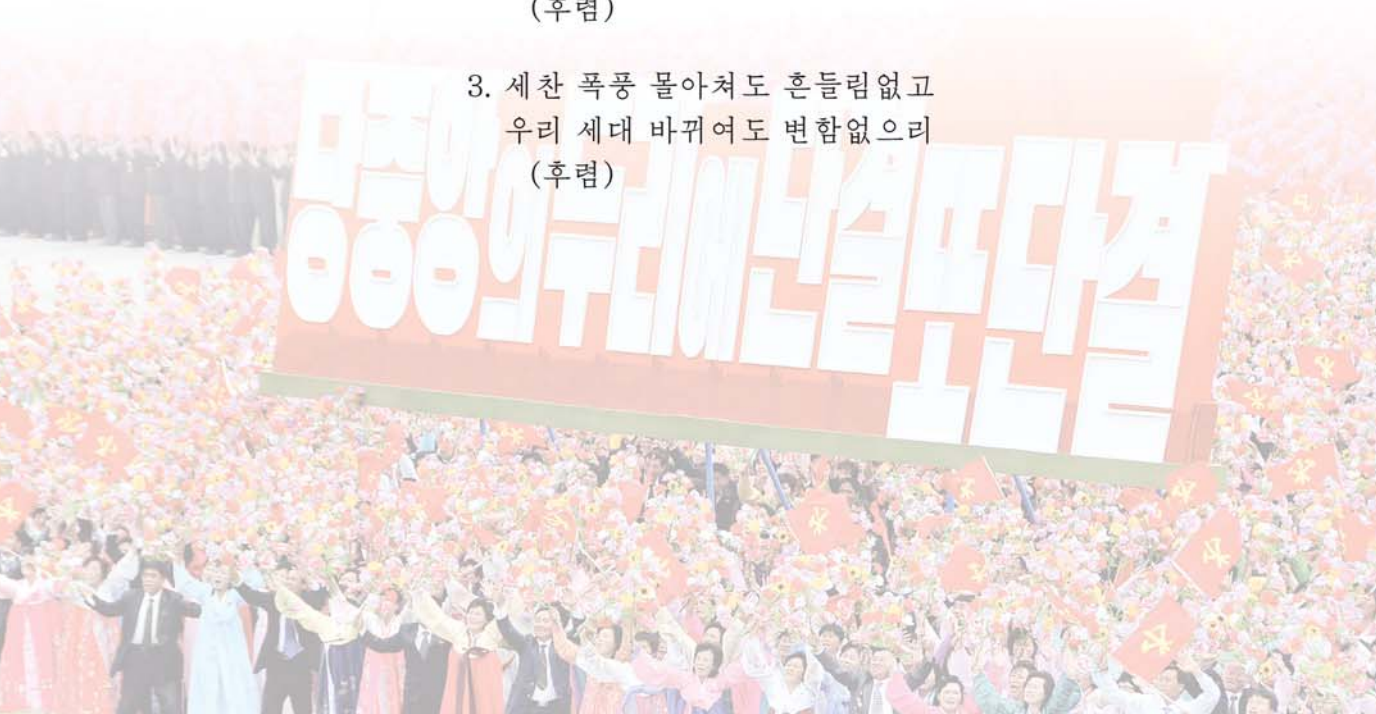
일 십 단 결은 우 리의 모습                      일 십 단 결은 조 선의 모습



당 을 따 르 는 오 직한 길 에 아                      영 - 원 하 리

2. 천만사람 말을 해도 한목소리요  
천만대오 걸어가도 한걸음일세  
(후렴)

3. 세찬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없고  
우리 세대 바뀌어도 변함없으리  
(후렴)





##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서예소조실을 찾은 재중동포들이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 차 례

-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

<b>조선을 떠미는 위대한 힘</b> . . . . .	3	
일 화		
<b>저쳐진 약속</b> . . . . .	7	
단 상		
<b>한상의 그림앞에서</b> . . . . .	8	
<b>일심단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보</b> . . . . .	9	
<b>한마음한뜻이 되어</b> . . . . .	10	
반 향		
<b>승승장구하는 조선의 비결</b> . . . . .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b>두만강을 건너</b> . . . . .	12	
<b>장군님의 인재관</b> . . . . .	14	
<b>태양칭송의 노래 울려되친 4월의 봄축전</b> . . . . .	16	
<b>주체비료생산의 우렁찬 동음</b> . . . . .	20	
<b>질 좋은 늪창들을 더 많이</b> . . . . .	22	
- 공화국의 70년 -		
<b>창조와 건설에로</b> . . . . .	24	
<b>별을 그리는 화가</b> . . . . .	25	
<b>기대되는 여자레슬링선수</b> . . . . .	26	

방문기

<b>보금자리에 넘치는 꿈과 희망</b> . . . . .	28
----------------------------------	----

장미향기 넘쳐나는 곳 . . . . .	32	
조국의 품에 안겨		
날씨예보와 함께 근 40년 . . . . .	34	
고향소식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의 주인들 . . . . .	36	
편지		
그리운 형님에게 . . . . .	38	
인상기		
수요가 대단히 높을것이라고 생각된다 . . . . .	39	
마음만은 늙지 않았다 . . . . .	39	
수기		
어머니조국은 기억하고있다 . . . . .	40	
이러저산이 될 교육현장을 . . . . .	41	
 44	이역땅에 품어낸 흥분의 열기 . . . . .	42
	평양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7) . . . . .	46
	사화	
	돌탑에 깃든 넋 . . . . .	47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과학기술 (2) . . . . .	48
	민족의 향기	
 51	평양의 특산-대동강송어국 . . . . .	49
	조국의 천연기념물 (17) . . . . .	50
	역사인물	
	《천수사남문도》와 리녕 . . . . .	51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 . . . . .	52
	6. 15통일시대는 자주에 있다 . . . . .	54
정치난쟁이의 휘방질 . . . . .	55	
야화		
《호박대(리)》 . . . . .	56	
상식		
조선의 국조-삼매 . . . . .	15	
여러가지 질병에 주의해야 할 음식물 . . . . .	34	
배부른기등 . . . . .	56	
조선속담 (사랑) . . . . .	32	
유모아		
술쉬는 방법 . . . . .	33	

# 조선을 떠미는 위대한 힘

조국에는 세상에 없는 위대한 힘,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힘이 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천만군민이 뭉칠 수 없는 혈연의紐대로 뭉쳐진 이 무한대한 단결의 힘은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떠미는 힘이다. 이 일심단결의 역사를 창조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일제 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기 위해 혁명의 길에 나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하신 사업의 하나가 동지를 얻고 그들을 굳게 단결시키신 것이었다. 그때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이의 비범한 위인적 품모와 령도력에서 그리고 자기들을 천금주교도 살수 없는 혁명동지로 믿어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끝없이 매혹되게 되었다. 하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이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이렇게 령도자의 위대함과 동지애에 의해 태어난 일심단결의 전통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높이 발휘되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안아올수 있었다.

해방후 당과 국가도 인민을 위한 당과 국가로 건설하시고 인민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온 나라 인민을 감격에 잠기게 하였다. 그 걱정속에 낳은 《7》자도 모르던 녀성이 문맹을 퇴치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고 농민들은 그이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수많은 쌀을 나라에 스스로 바치는 애국적소행도 발휘하였다.

그 과정에 인민들은 《자기》라는 울타리속에서 벗어나 집단주의로 무장하고 단결을 귀중히 여기는 사상정신세계의 소유자들로 자라났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인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뭉친 힘으로 인민은 일제가 몇년이 걸려도 하지 못한 보통강개수공사를 수십여일만에 완공하였고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전승을 안아오는 신화를 이룩하였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던 전후복구건설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군중시위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북구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  
주체42(1953)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일념안고 투쟁하는 로동계급  
주체63(1974)년

을 3년안에 끝내고 단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는 등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수 많이 창조하였다.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밑에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보다 높이 발휘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유산인 공화국을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빛내이시기 위해 그이께서 바쳐가신 로고와 심혈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도 인민들에게만은 밝은 웃음을 안겨 주시기 위해 온 나라 곳곳을 찾

고찾으신 그이시였다.

그 길에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군인들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보신 그이께서는 여기에서 시련과 난관을 승리적으로 돌파할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되시였으며 군인들의 이 정신력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하여 인민군대가 맨 앞장에서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발휘되게 되었으며 이로 하여 일심단결의 전통은 새로운 경지에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이 나날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자,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그이에 대한 신념을 버릴수 없다며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자기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였다. 하여 그 정신력의 상징인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등이 련이어 타번지게 되었다. 그리고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고 도처에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 청년영웅도로와 광명성제염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뿐만아니라 구월산과 칠보산 등이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지고 정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대규모공업기지들이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 주신 일심단결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보다 강화 발전되고있다.

돌이켜보면 민족이 대국상을 당하였던 피눈물의 12월에 조국의 천만군민은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비분으로 몸부림치였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인민들은 그 따뜻한 열과 정에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이 그이의 아버지이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나라의 최고중대사를 토론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 피해복구사업을 중요문제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멀고먼 그곳을 여러차례나 찾으신 그이를 따라나서며 군대와 인민은 《우리 원수님》 하고 심장으로 웨쳤다. 그 나날 군대와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이를 믿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주체106(2017)년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가는 인민군군인들 주체98(2009)년





-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

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 관철해나갈 때 자기들의 행복한 앞날도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기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그이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려명거리건설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당시 렬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었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과시하며 조국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며 건설을 앞당겨나갔다. 하지만 뜻밖에 제기된 북부피해복구전투로 하여 건설력량이 피해지역으로 떠나게 되었

고 건설을 예정대로 끝낼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조건 관철해나갈 드높은 열의를 안은 군대와 인민은 북부피해지역의 방대한 건설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긴 즉시 다시 달려와 렬명거리건설에 달라붙었다. 지휘관도 병사도 한모습이 되어 뛰는 군인건설자들과 온 나라 곳곳에서 달려온 청년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는 건설장들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으며 끝내는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방대한 렬명거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과 높이에서 훌륭히 일떠세웠다.

이런 드높은 열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해보려고 최후발악적으로 나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적대응전략과업관철에서 보다 높이 발휘되었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천만군민은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뭉쳐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그것은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이 보다 악랄해질수록 보다 백배해졌으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힘, 지혜를 총폭발시키였다. 온 나라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그이의 말씀과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투쟁기풍이 활화산같이 불타올랐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산소열

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기계공업부문에서 새형의 트랙트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였는가 하면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자재, 원료의 주체화를 실현하여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자체의 기술과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협동농장들에서도 높은 알곡수확고를 기록한 다수확농장, 다수확작업반들이 련이어 태어난것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사람들을 놀래우는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있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결코 조건이 좋아서나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 이룩되는 모든 승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승리이고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힘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조국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였던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반드시 승리가 오고 더 좋은 행복, 더 큰 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을 확신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불패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일화

지켜진 약속

주체105(2016)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홍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주체105(2016)년 4월부터 렬명거리건설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건설자들뿐이 아니였다. 전체 인민이 렬명거리건설을 도와나섰다.

조국의 전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적대세력들은 제재요, 뭐요 하면서 렬명거리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리며 방대한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하면서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두배가 훨씬 넘는 렬명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중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단 13일만에 축구경기장 몇개를 합친것보다 면적이 더 큰 초고층살림집들의 외벽타일붙이기를 끝내었

으며 70층살림집골조공사도 74일만에 끝내는 건설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발맞춰 전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렬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최우선 생산보장하였다.

수천수만명의 청년들과 평양시민들도 매일 밤을 새우며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였으며 온 나라가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여 렬명거리는 주체106(2017)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완공될수 있었다.

려명거리의 완공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마련된것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렬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렬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신것이 아니라.

본사기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일떠세운 렬명거리의 일부







단 상

## 한상의 그림앞에서

나는 지금 한상의 그림앞에 서있다.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한별로 칭송하며 그이께 매혹되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할 것을 맹세다지고 그이를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운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 그들속에는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고 휘발하강가에 나가 손에 손을 잡고 《ㄷ.ㄷ》의 이 기발 영원히 놓지 말자며 서로서로 어깨걸고 결사의 맹세를 다지던 열혈청년투사들도 있다. 사상과 뜻으로 한덩어리가 되어 영원히 한별의 동지가 되리라는 맹세를 안고 전장의 폭음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한별을 목매여 부르며 피로써 통일단결의 새 령도를 개척한 선구자들. 하기에 청년공산주의자 김혁은 혁명의 령도자

한별을 노래한 《조선의 별》을 창작하였으며 그림에서 보는것처럼 동지들과 함께 그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있다. 그들이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일심단결의 시원을 열어놓았기에 조국은 조국해방의 령도적위업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운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전통이며 조국의 위대한 힘이다. 일심단결로 전진하는 조국은 영원히 승리만은 아로새길것이다.

본사기자 임향심

## 일심단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보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은 국제사회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믿으며 뜻도 마음도 함께 해나가는 일심단결, 이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담보로 되고있다.

조국의 발전행로는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승리하여온 령사로 빛나고있다.

창건된 첫날부터 70성상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위력으로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승리와 변혁을 이룩하고 끊임없는 전성기를 펼쳐온 우리 공화국이다.

일심단결의 전통은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이룩되었다. 그때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고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일심단결의 전통은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원천으로 되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그 나날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드는 길에 참된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누구나 실생활을 통해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이러한 정신세계는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혼연일체를 이루게 하였다.

2년전 함북도 북부지구에 큰물이 들이닥쳐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왔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때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기적적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호소문은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려명거리건설까지 중지한 령도자의 중대결

심을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를 방불케 하는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어 적들의 전쟁도발책동과 극악한 제재봉쇄가 감행되는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60여일만에 조국의 북변에 인민의 사회주의보금자리가 보란듯이 일떠섰다.

력사에 류례없는 큰물피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는 전대미문의 복구전투를 치르고도 불과 1년이라는 기간에 려명거리가 완공되었다.

과연 무엇이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기적적인 성과를 낳게 하였는가.

그 비결은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군대와 인민의 결사관철의 정신,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

지금 온 나라에 자력자강과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는것도 일심단결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보건산소공장,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류경안과종합병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하기에 적대세력들까지도 첨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인도 재현해낼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조선만이 유일하게 독점한 천하유일의 재보이고 핵무기로도 당해낼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이다라고 진실을 터놓고있는것이다.

일심단결, 이것이야말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국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공화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불가항력적힘이라 할수 있다.

마를줄도 진할줄도 모르고 날로 장성하는 그 위대한 힘으로 우리 조국은 만년을 짓부시며 승리의 한길로만 줄달음칠것이며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 올라설것이다.

평양기계종합대학 교수 박사 채희원



# 한마음한뜻이 되어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축섬에는 건축미가 독특하고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과학기술전당이 웅장하게 솟아있다.

주체103(2014)년 6월 축섬 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축섬을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과학기술전당을 하루빨리 훌륭히 일떠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섰다.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의 앞장에 섰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곧 실천이라는 억척

같은 신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지휘관도 병사도 한모습이 되어 전당플조공사와 숙조건설 등을 동시에 립체적으로 밀고나가는 모습은 온 건설장을 끓게 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따라 철도성건설관리국아래 건설자들도 축섬인입다리건설에서 련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룡해운성아래 건설자들은 지상 확대식조립공법과 미끄럼식공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다리 보조립기일을 앞당겨나갔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일군들은 과학기술전당건설에 대한 지도와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앞선 과학기술성파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장해주었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저녁이면 하루일을 끝마친 수많은 각 계층 수도시민들이 건설장에 찾아와 자기들의 지성어린 지원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과 일도 함께 하며 고무해주었다.

그들속에는 건설자들의 생일상을 차려준 평천구역의 일군들과 녀맹원들도 있었고 지원물자

와 함께 학급학생들이 쓴 위문편지를 들고온 락랑구역의 처녀교원도 있었으며 비록 팔손이 넘은 몸이지만 군인건설자들이 리용하는 기공구들을 수리하여 보장해준 동대원구역의 전쟁로병도 있었다.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벌려나가는 이런 헌신적인 투쟁,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위력이 있어 마침내 과학기술전당건설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게 되었다.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 완공에 바쳐진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열정과 불굴의 정신력, 불타는 애국심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이 땅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새로운 시대어로 태어났는데 과학기술전당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방대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완공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은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마다에서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본사기자

반향

#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비결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어제날 식민지약소국이였던 조선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선이야말로 기적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뒤흔드는 강대한 나라이다.

조선이 달성하고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은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있는데 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인 미국이 조선을 굴복시키려 하고있으나 그것은 완전히 실현불가능한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일심단결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다, 미국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기네신문 《호로야》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의 위력이며 그 근처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

이 있다고 하였다.

로씨야신문 《자브뜨라》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천출위인인 **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은 미증유의 힘과 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떠올리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김정은**최고령도자와 그이를 옹위하여 떨쳐나선 일심단결의 위력은 조선을 세계가 알지 못하는 불패의 초대국으로 떠받드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결정구조는 핵탄으로도 깨뜨리지 못한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 \*





## 두만강을 건너

(전호에서 계속)

우리는 밤에 배를 타고 조용히 두만강을 건넜다. 오중성은 노도 걸싸게 잘 저었다. 어둠 속에 묻힌 산야를 바라보느라니 5년만에 조국땅을 다시 밟는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려 견딜수 없었다.

나는 남양상탄에서 배를 내린 다음 오중화에게 나라를 독립하고 이 강을 건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하였다.

오중화는 내 말을 긍정하며 자기도 두만강을 건널 때면 매번 그런 감정에 잠긴다고 하였다.

남양상탄마을을 지나 남양산으로 오르는 고개길에 들어선 우리는 오중성이 미리 마련해 놓은 초막에 들어가 온성지구 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과 군중들의 동향을 료해하였다.

온성사람들이 대중조직을 내오는데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다.

나는 한주일동안 국내지하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온성지구 혁명가들이 국내도처에 많은 조직들을 내오기는 했지만 그 조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심한 소극성을 범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약이 있는 몇몇 정수분자들로 조직을 꾸린 다음에는 문

을 단아매고 그 대렬을 늘이지 않는것이 이 일대에서는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있었다.

1929년 봄에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산하조직으로 무어진 온성공청도 몇몇 안되는 성원들로 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있었다. 지방회니, 진흥회니, 신간회니, 당재건파니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과벌들이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당기고있는 실정에서 나쁜 바람이 조직에 흘러드는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전전공공하면서 현상유지나 하고있는 형편이었다.

내가 풍리에서 만난 어떤 공청일군은 원썬들의 책동이 심해지니 사람들이 통 결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어떤 공청일군은 청년동맹이나 신간회에 관계한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풍인동농민협회 책임자로 일하고있던 전장원이란 사람은 자기 친척들 가운데 구장, 면장, 순사질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때문에 그 줄을 타고 적들의 마수가 혁명대렬에 뺨쳐올가봐 은근히 신경을 도사리면서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적의 통치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을 주지 않

고있었다. 이것이 다 대중을 믿지 않는 표현이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온성지구에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을 심화발전시킬수 없었다.

혁명가의 일생은 대중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말할수 있고 혁명의 실패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나는 오중성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였다.

출신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으로는 혁명을 할수 없다. 대중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위해 조직의 문을 넓게 열어놓아야 한다. 형형색색의 간판을 가진 청년단체들이 저마다 청년들을 끌어당기고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청조직은 피동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려 많은 청년대중을 전취해야 한다. 청년동맹이나 신간회 조직들에 관여했던 청년들, 당재건과분자들에게 붙어다니거나 무의식적으로 리용당하고있는 청년들도 잘 깨우쳐주고 이 끌어주어 한사람한사람씩 우리 편에 쟁취해야 한다. ...

전장원동무에게도 적기관 복무자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전술적원칙들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은 가문에 구장, 면장, 순사가 있다고 놀라거나 축잡혀서는 안된다. 동무는 오히려 그러한 친척관계를 타고 적통치기관에 들어가서 왜놈들의 말단통치구를 마비시켜놓고 판을 크게 벌릴 잡도리를 해야 한다. 온성을 비롯한 룡읍일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리자면 대중을 혁명화하는것과 함께 적통치기관 복무자들을 대담하게 전취해야 한다. 적기관 복무자들을 전취하는 사업에서 한번 경험을 쌓아보라.

온성에 갔을 때의 일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김준, 오중화, 오중성동무들과 함께 미포면 월파동철도부설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던 일이다.

일제는 1929년초부터 두만강연선에서 철도부설공사를 다그치였다. 삼남지방을 비롯한 국내각지와 간도에서 1 000여명의 인부들이 모여들어 월파마을에 개풍거리라고 부르는 번잡한 주민지구를 만들어놓았다. 길회선철도부설공사장에 가있던 인부들도 이 거리에 밀려들어 별이를 하느라고 고역을 치르였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김준을 만나 월파동에서 철도부설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면 노동자들속에 뚫고 들어가 조직을 꾸려보라고 하였다.

김준동무도 한번 해볼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후 그는 나

와 약속한대로 온성에 들어가 월파동에서 로동청년회와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내가 철도부설공사장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온성동무들은 놈들의 경계가 심하니 그것만은 단념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그들은 《국제당과견원이 왔다.》고 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느라고 여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국제당과견원》이라는 직함까지 붙이면서 호위조직을 면밀하게 해준것은 국내에서 혁명가들에 대한 일본경찰의 감시와 경계가 그만큼 심하였기때문이었다.

물론 나도 조선에 나오면 매사에 조심해야 하며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속에 들어가서 당장 큰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힘이 될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고싶은 심정이였다. 내가 그때까지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해온것은 다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우리의 종국적목적은 로동계급을 내세워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완성하자는것이였다. 로동계급의 해방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것을 맹세한 그날부터 우리는 얼마나 조선의 로동계급을 그리워하였던가.

나는 공사장에 들어가 하루 반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자갈도 부리고 모래도 나르고 《합

바》(로동자숙사)밥도 먹어보았다.

김준은 나를 연길에서 공부할 하다가 학비를 보태려고 온 동무라고 소개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로동자들속으로 들어간것이 아주 유익하였다고 생각한다. 《합바》나 공사장에서 내가 본것은 몇푼의 품삯을 벌기 위해 아득바득 애쓰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군상만이 아니였다. 나는 거기서 투쟁을 갈망하는 로동자들,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개척해줄수 있는 옳바른 길을 찾아 해매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내 가슴은 로동계급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싶은 열망으로 불탔다.

나는 그때 철도부설공사장에서 온성출신의 항일투사들인 최춘국, 최봉송동무들과도 처음으로 낯을 익히였다.

최춘국은 숙사로 나를 안내하면서 자기가 남포군으로 일하는 동안 비밀리에 화약을 모아두었는데 공사가 완공되는 날 그것으로 차굴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형편에서 차굴을 폭파하는것과 같은 모험을 하는것보다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것이 더 절박하니 화약은 두었다가 앞으로 무장투쟁을 할 때 요긴하게 쓰자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장군님의 인재관

주체53(1964)년 6월 19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있었던 그이의 인재관에 대한 몇가지 사실들을 아래에 실는다.

## 인재가 많아야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강성변영을 위한 제일 밑천이다.

조선로동당은 일찌기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인재육성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언제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내용의 교시를 하시였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이며 나라를 발전시키자면 인재가 많아야 한다고, 오늘에 와서 우리의 재부는 황금이 아니라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첨단과학기술로 준비된 인재이라고, 과학기술에서 첨단을 돌파하여 세계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의 기본력량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희천공업대학을 비롯한 대학졸업생들이며 여기서 앞장서야 할 일군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꾸리는데서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교육교양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의학부문, 농학부문의 대학들을 소속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정보산업시대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인재들, 이름있는 과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일류급대학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대학의 규모와 범위, 교육설비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학에서 키워내는 인재들의 질과 수준에 따라 인정하고있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첨단을 돌파해나갈수 있는 실력을 지닌 인재 특히 과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과학자들을 키워낼수 있다는것이 그이의 뜻이였다.

## 현대판 《홍길동》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은 큰 역할을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조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만나시면 그리도 기뻐하시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고 내세워주시였다.

현대판 《홍길동》-이 부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기술인재육성의 최고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에게 붙여주신 애칭이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이께 공장의 일군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첨단수준의 통합자동화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면서 한켠에 서있는 과학자를 가리켜드리며 이번의 기술개건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한 동무라고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를 보시고 무척 반가와하시며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말린편공장에서 만났던 동무인데 오늘은 또 여기서 만난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과학자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동무는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만나본 사람들도 더없이 많으시련만 그이께서는 단 한번 잠깐 뵈운데 불과한 과학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였다.

그날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긍정도 해주시고 과학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묻기도 하시면서 아주 잘하였다고, 큰일을 하였다고, 대단한 성과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홍길동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날래고 용맹하며 슬기로운 기질로 도처에서 큰일을 치는 사람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장군님께서 이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범한 과학자에게 베풀어주신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전설속의 홍길동처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 재보이며 자랑

어느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우리가 이제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투쟁경험도 쌓았으므로 전도는 매우 밝고 휘황하다고 가르치시면서 올해는 과학의 해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총명하고 기발한 창조적재능을 가지고있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귀중한 재보이며 크나큰 자랑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 다음날 일군들을 다시 부르신 그이께서는 올해는 과학의 해인데 국가과학원에 함께 나가 보자고 이르시였다.

하여 그해 그이의 현지지도의 첫 자욱이 국가과학원에 새겨지게 되였다.

과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20대의 젊은 과학인재들이 그리도 대견하고 미더우시여 기분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그날 저녁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당시)의 신년경축공연을 보시면서도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다고 거듭 교시하시였다.

그해 3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또다시 과학자, 기술자들이 거둔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같은 해에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마련해주시여 경제건설도 과학으로 추동하고 사회주의강국도 과학으로 일떠세우려는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장엄히 선언하도록 하시였다.

정녕 과학기술인재들을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사랑은 그렇듯 뜨겁고 한량없는것이였다.

본사기자

## 상 식

# 조선의 국조-참매

참매는 우리 나라의 국조이다.

참매는 력사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웃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새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참매를 길들여 꿩, 메토끼와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널리 리용하여왔다. 세나라때에는 이미 민가들에서 매를 기르고있었고 고려때에는 매를 기르는 국가적인 관청까지 있었다.

참매는 일명 보라매, 푸른매 또는 꿩매라고도 하였으며 주변나라들에서는 해동청(푸른매)으로 알려져있었다.

참매의 몸길이는 보통 48~61cm이고 몸무게는 500~1360g이다. 부리는 작고 다리는 가늘고 긴편이다.

몸색은 여러가지이다. 보통 수컷의 정수리와 뒤통수부는 검은색이고 뒤목은 밤색을 띤 검은색이며 날개깃은 검은 밤색이다.

가슴, 배, 다리깃은 흰색인데 검은 밤색의 가는 가로 무늬가 있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다.

참매는 산림에서 살면서 주로 쥐류와 꿩, 비둘기, 메토끼 등을 잡아먹는다. 참매는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번개같이 내리쫓는다. 보통 무리를 짓지 않고 한마리씩 생활하며 번식기간에만 짝을 이룬다.

참매는 보통 4월말~5월초에 우리 나라의 북부산지에서 번식을 하며 중부이남에서 겨울을 난다.

참매는 몸통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균형잡힌 외모와 밝은 눈, 날카로운 부리와 역설 발톱, 매우 빠른 속도와 령리하고 결쾌있는 기질을 가지고있다.

\* \* \*





# 태양칭송의 노래 울려 퍼진 4월의 봄축전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중에서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예술단 성악가의 공연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중에서

온갖 꽃이 피어난 화창한 4월의 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경축 중앙보고대회, 태양절경축 제20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태양절경축 조선우표집중전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

더우기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재중조선인예술단, 재일조선인예술단,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예술단 성악가를 비롯한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친선의 정을 안고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권위있는 예술단들 그리고 재능있는 예술인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이목을 집중시켰다.

축전에서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여러 나라의 국제국내콩쿨수상자들, 명배우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세계인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였다.

공연이 진행되는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은 련일 사람들로 초만원을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의 한 장면

가), 혼성2중창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 위인칭송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은 어려워도 힘겨워도 사회주의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재일동포들의 철석의 의지를 노래 《조국은 원수님》, 2인무 《피줄도 하나》 등에 담아 잘 형상함으로써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악가도 우리 조

이루었다.

특히 몸은 멀리 해외에 있어도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인민들과 마음도 숨결도 보폭도 함께 하려는 해외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은 축전무대를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은 녀성독창 《오직 한마음》, 《내 심장의 목소리》, 혼성중창 《조국찬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중에서

국의 전변의 모습을 반영한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흥취나게 불러 장내를 들썩이게 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배우들도 발레무용극 《지젤》, 《붉은 녀성중대》를 품위있게 형상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고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형제적중국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로씨야 엠. 예. 빠뜨니뜨끼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민속합창단의 예술인들은 조선인민의 감정정서에 맞는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장내를 격동시킨것을 비롯하여 몽골전국협주단, 벨라루씨국립음악아카데미야극장 고전발레단, 에스빠냐 플라멩꼬민속음악단 등 여러 나라 예술인들도 높은 예술적기량을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로씨야, 벨라루씨의 교



예배우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교예배우들의 훌륭한 기교 역시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축전은 막을 내렸지만 조국인민과 세계 진보적 예술인들은 태양칭송의 노래를 언대와 세기를 이어 높이 부르며 문화적협조와 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주체비료생산의 우렁찬 동음

올해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파업관철에 떨쳐나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주체비료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지금까지 수십만t의 주체비료를 생산하였다.

혁신의 앞장에는 선행공정을 맡고있는 로동자들이 서있다. 그들

은 석탄이 들어오는 즉시 뒤공정에 질 좋은 봉탄생 산원료를 보장하여주고있으며 이에 뒤질세라 봉탄생 산공정의 로동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하루생산실적을 2배로 끌어올리고있다. 봉탄보장이 앞서나가니 모든 가스발생로들에



비료종합조작실에서

서 만부하를 걸고있다.

합성공정을 비롯한 뒤공정들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이에 맞게 기대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곳에서 만난 공장일군인 김순학은 말하였다.

《올해 시비년도 비료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여러가지 불리한 생산조건, 원료보장조건들이 앞을 가로막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난관이 겹쌓일수록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이 모든것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료생산에서 제

가스분해탑과 수지마대생산



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 기간 자체로 할수 없었던 부속품생산을 진행하고 능률적인 콘베어를 받아들인것을 비롯하여 10여건의 가치있는 새 기술들이 현실에 도입되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곳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촉매를 비롯한 여러가지 걸린 문제를 풀어 생산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석탄소비 대 비료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였다. 뿐만아니라 현대적인 순환비등층보이라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 증기문제를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재자원화실현을 다그치고 에네르기절약형의 생산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비료생산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생산장성의 열쇠로 틀어쥐고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지금 기업소에서는 주체비료생산의 우렁찬 동음이 높이 울리고 시간이 다르게 비료산이 쌓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질 좋은 늪창들을 더 많이

만리마대진군의 불길속에 만경대에국늪창공장의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제품개발과 생산정상화의 비결을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에서 찾고 이 사업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생산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목재를 리용한 3겹유리창, 카텐월창, 루바천정창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창문, 출입문들을 새로 개발하였다.

그런가 하면 압출공정종합감시조종체계를 구축해놓고 모사후라이스, 불꽃방전기공기를 CNC화, 현대화하여 생산공정에 대한 자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뿐만아니라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곡기, 연신기, 절단기, 분쇄기 등을 새롭게 제작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능률을 증진

에 비해 훨씬 높이었다. 이와 함께 수입에 의존하던 랄지제, 정련제, 유도로내화물, 개량제, 밀폐바킹 3종을 비롯하여 20여가지의 원료, 자재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은 형재직장, 표면처리직장, 조립직장, 부속품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도 발휘되고있다.

형재직장의 로동자 주경일, 송경옥은 줄방전기공기의 선보내기장치를 현대화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정상화에 이

바지하였다. 공장의 일군인 김현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의 종업원들은 새 제품개발과정을 통하여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생산공정과 설비, 원료와 자재의 주체화와 함께 공장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 질 좋은 늪창들을 더 많이 만들어 수도의 건설장들에 보내주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질 좋은 늪창제품생산을 위해 열정을 바쳐간다.





## 창조와 건설에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에서는 창조와 건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주체59(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 인민경제발전6개년(1971년-1976년)계획목표와 그에 기초하여 각 부문별과업을 제시하시였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였다.

대회에서는 3대기술혁명과업도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3대기술혁명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주체60(1971)년 2월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시여 공작기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이 공장에서 벌어지게 되였으며 그 투쟁의 불길은 구성을 비롯한 각지의 기계공장들로 퍼져갔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농촌기술혁명도

세차게 벌어져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대규모의 트랙터공장이 일떠서고 자동차생산기지, 각종 농기계생산기지들도 튼튼히 꾸러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건설 구상을 실천으로 구현해나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2(1973)년 1월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황해제철소(당시)를 자동화의 본보기로 잘 꾸려 그 경험을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1년 남짓한 기간에 황철에는 전면적자동화의 본보기가 마련되고 청산리가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로 꾸러지게 되였으며 그 성과와 경험이 온 나라에 일반화되게 되였다.

이렇게 전국적범위에서 3대기술혁명이 추진됨으로써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렵고 힘든 로동이 대부분 없어지고 생산능력이 높아져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으며 결과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게 되였다.

주체66(1977)년 12월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제2차 7개년 인민경제계획(1978년-1984년)수행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계획기간 인민경제의 중요부문에 나선 과업들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짐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경제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나라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 전민이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검덕광업종합기업소(당시) 3선광장건설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으며 1만t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제작 등 경제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위력은 서해갑문건설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20리날바다를 막아 언제를 쌓고 여러개의 갑실과 수십개의 수문을 일떠세워야 하는 세계굴지의 갑문건설공사를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체의 설비와 자재, 기술로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그런 속에서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한층 강화되였다. 뿐만아니라 전력, 금속 등 기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량이 늘어 일어났으며 한개 도시를 방불케 하는 광복거리와 북부철길 등 중요대상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참으로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력사에서 전후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그때처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창조와 건설, 혁신이 일어난 뜻깊은 년대였다.

본사기자



양동근

## 범을 그리는 화가

민족의 유구한 력사과정에 창조된 조선화는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적정서와 기백을 잘 보여주고있다.

고상한 예술적특성과 선명하면서도 간결하고 섬세한 조선화는 그 다양한 기법들을 터득한 오늘의 조선화화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우수한 민족회화인 조선화화법에 정통하고 오랜 기간 꾸준한 창작적노력으로 조선범을 그려오는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건축장식미술교류실 실장 양동근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가 전통적인 우리 민족회화기법으로 그린 대표적 작품들로서는 조선미술박물관에 국가소장품으로 등록된 조선화 《백두의 쌍호랑이》와 《노성》을 들수 있다.

주체97(2008)년 조선미술박물관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발행된 화첩에 소개된바 있는 조선화 《백두의 쌍호랑이》[주체83(1994)년 창작]는 우리 민족회화의 고유한 기법인 강약의 단뽕질로 장엄한 백두산의 웅장한 기상속에 범의 자태를 보여준 물

골화로서 화면구성과 묘사에서의 대담한 함축, 필치의 기운찬 흐름과 간결한 맺음새로 화면을 창조하였다.

또한 그가 주체87(1998)년에 창작한 조선화 《노성》은 옛적부터 우리 인민이 리용해온 명주천바탕에 부드러운 색피움을 여러번 반복하면서 불이 이는듯 한 눈, 사나운 이발, 뽀찐 수염, 온몸에 용맹이 넘쳐흐르는 범의 자태를 우림기법으로 능숙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외에도 그는 인물화, 화조화, 풍경화들을 수 많이 창작하였는데 우수한 작품들로 평가되였다.

다년간 그와 함께 창작생활을 하여온 인민상수상자이며 인민예술가 박사인 김성근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화화가로서 양동근이 범전문화가로 화단에 당당히 서있는것은 지난 기간 성공한 력대 미술가들이 그러한것처럼 그에게 남다른 열정이 있기에문이다. 그의 작품이 다른 그림들과 구별되는 것은 범에 대한 탐구와 형상에 자기의 온 심혈을



쏟아붓고 조선범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그리기 때문이다.》

조국의 북변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시절부터 포수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류다른 성장과정은 그로 하여금 범을 그리는 화가로 되게 한 바탕으로 되었다.

하기에 그는 손에 연필을 쥐면서부터 째만 있으면 범을 즐겨 그렸다. 그러한 습관은 학교시절은 물론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가 학교시절에 그린 범그림들은 균적인 미술경연에 입선하였다. 그러한 그를 두고 마을사람들은 미술신동으로 불렀다.

어릴 때부터 친숙해진 범을 실감이 나게 형상화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평양미술대학(당시)에 입학하여 관록있는 미술교수들의 지도와 방조속에 배가되었다.

그후 자신이 대학교단에 서게 되었을 때 범에 대한 그의 지식은 동물전문가이상으로 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용맹과 너그러움, 정의의 상징으로 조선민족의 상징동물로 그려온 범을 장엄한 백두산의 기상과 더불어 조선화의 다양한 기법들로 그려가고있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범화가라고 즐겨 부르고있다.

조선범을 자기의 신체를 알듯 남다르게 연구하고 그려온 량동근은 범의 생태학적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령하 40℃의 추위에도 백두산지구에 대한 탐험의 길에 나섰으며 때로는 조선범의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원에 나가 살기도 하였다. 습작과정에 범우리에 《침입》하여 사냥공들을 놀래우고 그때문에 안해의 불안에 찬 눈총을 받기도 하였다.

범을 그리면서 그에게는 하나의 신조가 자리잡혔다.

《인간을 그리려면 마음을 그리고 범을 그리려면 뼈를 알아야 하며 뜬금으로는 그리지 말라!》

조선범을 그리는 그의 개성적특징은 범에 대한 새로운 형상적평감이 번뜩이지 않는 한 절대로 붓을 들지 않으며 창작초기의 의도가 비껴있지 않은 작품들은 비록 완성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현시키지 않는다는데 있다.

매 화폭마다에 비반복적인 뜻을 담기 위한 그의 노력은 끝이 없다.

그의 작품들은 드물게 보이지만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범을 그리는 조선화화가로서의 피타는 노력과 숙련은 더해만 가고있다.

오늘 조종의 산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조선범의 형상에 량동근은 자기의 정열을 쏟아붓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기대되는 여자레슬링선수

조국의 2017년 10대최우수선수들중에는 대외경제성체육단의 여자레슬링선수 공훈체육인 김선향도 있다.

그는 평양시 락랑구역의 평범한 노동자가정의 맏딸로 태어났다. 육체적준비와 함께 힘이 남달리 좋은것으로 하여 11살때부터 당시의 평양체육단청소년체육학교에서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발전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한다. 하기에 그는 제48차, 제49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여자레슬링 46kg급경기에서 련속 순위권에 입선하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다.

당시 지도교원이었던 황명식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선향선수가 빨리 발전할수 있는것은 그가 레슬링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가진데도 있겠지만 보다는 반드시 레슬링으로 성공하겠다는 정신적 각오가 높은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그는 배우려는 열의가 높

고 하나의 기초기술을 배워주면 그날로 습득하기 위해 아글타글 훈련하였습니다.》

고 하나의 기초기술을 배워주면 그날로 습득하기 위해 아글타글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도교원은 그가 그렇게 훈련을 잘한데는 부모들의 관심이 높은데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지 그의 부모들은 자주 학교에 찾아와 딸의 훈련모습도 보고 경기성과도 축하해주며 이렇게 당부하였다고 한다.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너의 재능을 찾아주고 키워주는 고마운 조국을 꼭 금메달로 빛내이거라.》

대외경제성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늘 그 부락을 잊지 않고 자기의 특기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소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육체적부담으로 지칠 때도 있었고 마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시도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보다 높은 목표를 완강히 점령해나갔다.

그러한 노력은 그의 경기성과에서 나타났다.

2013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46kg급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한 그는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그후 타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46kg급경기에서 또다시 우승한 그는 중국에서 진행된 제2차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도 1위를 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을 놀래웠다.



김선향

그러나 그의 청소년급에서의 우승의 성적은 성인급경기에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는 2017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48kg급경기에서 2위를, 2017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48kg급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하지만 2017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의 경기를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은 선향선수가 비록 2등을 하였지만 그의 높은 경기의식과 다양한 특기는 경탄할만 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꼭 1등을 쟁취할수 있을것이라고 평하였다.

경기과정을 본다면 그런 평을 내릴만도 하였다. 당시 결승경기마감시간에 4 : 2로 선수권보유자가 앞선 상태였지만 주도권은 선향선수가 쥐고있었다. 인차 선향선수의 2점짜리 기술이 성공으로 이어졌지만 그 순간 경기마감을 알리는 종이 울린것으로 하여 그는 이 경기에서 아쉽게도 지고말았다. 만일 그가 조금만 빨리 기술을 발휘하였다면 경기결과는 달리 되었을수도 있었을것이었다.

지금 김선향선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크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김선향





방분기

# 보금자리에 넘치는 꿈과 희망

- 남포초등학교를 찾아서 -



얼마전 우리는 남포시교외에 자리잡고있는 남포초등학교를 찾았다.

따스한 햇빛이 비쳐드는 교사의 창문들마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오고 새파란 인공잔디가 펼쳐진 운동장에서는 원아들이 축구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 우리는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부원장 박현명을 만날수 있었다.

원아들의 밝은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에 새로 건설된 우리 초등학교는 원아들이 학습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원아들의 보금자리인 학교의 곳곳을 돌아보았다.







동식물들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넓혀주는 자연실과 도화공작실을 비롯한 실험실습실도 손색이 없었지만 잘 꾸러진 교실들에서 마음껏 배우는 아이들의 활기있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밝게 해주었다.

우리는 4학년 2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참관하였다.

《나의 희망을 들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된 글짓기를 발표하는 수업에서 원아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희망을 발표하였다.

학습장마다에 5점꽃만을 피워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다는 원아가 있는가 하면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어 조국을 지키겠다는 아이도 있었고 이름난 시인이 되겠다는 원아도 있었다.

비록 원아들의 꿈과 포부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와 같이 아름다운 래일이 간직되어있었다.

원아들의 상식과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동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들이 붙여진 복도와 계단을 지나 우리는 정보기술학습실에도 들러보았다.

이곳에서는 4학년 1반 원아들이 컴퓨터에서 로봇을 그리고있었다. 머리와 목, 몸순서로 도구들을 리용하여 짧은 시간에 로봇을 그려내는 원아들의 모습은 무척 대견하였다.

김철남교원은 4학년과정안의 기본은 타자훈련, 문서작성 등인데 그중에서도 원아들이 제일 흥미있어하는것이 그림그리기라고 하면서 우리를 한 원아에게로 이끌었다. 남달리 창조력이 뛰어난 박영성학생이라고 소개한 교원은 지난 시기 이 학생이 학원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경연들에서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교수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원아들을 잘 키워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그이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교단에 섰을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원아들을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우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이곳 교원들의 모습도 보았다.

학원에는 수학, 글짓기, 바둑, 축구, 예술체조, 음악무용소조 등이 운영되고있어 수업을 마친 원아들이 이곳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었다.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 우리는 원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싶어 기숙사로 향하였다.

1층홀에서는 액정텔레비죤앞에서 만화영화를 보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호실들에서는 둘셋씩 짝을 무어 재미있는 그림책을 보거나 빙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는 원아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의사실에는 한달전보다 몸무게도 키도 부쩍 늘어난 자기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보는 원아들도 있었다.

정말이지 학원의 그 어느곳에 가보아도 한 점의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있는 원아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웃음과 기쁨에 넘친 그들을 보느라니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언제나 원아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안고사시며 이 세상 제일 좋은것, 제일 훌륭한것을 원아들에게 먼저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친아버지의 그 사랑에 떠받들리어 조국땅 곳곳에 일떠선 원아들의 보금자리,

비울세라 눈울세라 다 막아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그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원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역세게 자라거라.

우리는 원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 장미향기 넘쳐나는 곳

장미는 수천년전부터 관상용, 약용 및 향료용으로 재배되어왔다.

아름다움과 열정을 상징하는 꽃으로 유명한 장미가 우리 조국인민들의 생활에 새롭게 자리 잡고있다.

3년전 11월 미래과학자거리 완공과 더불어 훌륭히 일떠선 류경장미원에는 단골손님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종합봉사기지인 류경장미원의 1층에는 건식 및 습식한증칸이 달린 일반목욕실과 한증방, 장미목욕실, 리발실 등이 있다.

봉사원 최윤희는 류경장미원에서의 제일가는 멋은 독특한 장미수목육을 하는 쾌감에 있다고 하면서 향기로운 장미꽃을 증류하여 랭각응축시킨 장미수를 1%정도 풀어넣은 물속에 10~15분

가량 몸을 잠그고있으면 피부에 영양분이 침투되어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질뿐아니라 쌓인 피로가 빨리 해소되어 몸이 거뜨해진다는 것이었다.

청량음료실은 한증방에서 땀을 흠뻑 낸 손님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배치되어있는데 이곳에서는 장미꽃차와 장미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청량음료들을 봉사해주고있다.

장미꽃차는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대단히 높은 꽃차의 한 종류로서 조국에서 자래운 천연장미의 꽃봉오리를 가공하여 만든것이다.

평천구역 미래동 51인민반에 사는 리옥숙녀성은 《류경장미원의 장미꽃차는 성질이 온화하고 향기가 그윽하며 피로회복과 간보호에 좋고 미용에도 특효가 있습니다. 나는 평양외국

어대학에서 실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세대주와 매일 퇴근길에 이곳에 들러 장미꽃차를 마시곤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옛날 왕족들이나 돈많은 특권층들만 리용하던 값비싼 장미제품들이 오늘은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에 적극 리용되고 있는것이다.

2층의 탁구장, 건강체조운동실, 미안실 등에서는 체육오락을 하고 장미수와 장미유로 미를 가꾸는 손님들 그리고 대동강반의 경치를 부감하면서 식사할수 있게 특색있게 꾸려진 만장의 식당과 차집에서는 료리와 차의 진맛을 느끼며 즐거움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류경장미원 지배인 방정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다실이 장미꽃향기속에 피어나는 인민의 웃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장미꽃향기는 한철이여도 사회주의문명의 향기는 언제나 계절을 모르고 풍길것입니다.》



손님들을 친절히 맞아준다.



미용실에서



탁구장에서



건강체조운동실에서

목욕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한증방



-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가까이 지내는 이웃사람이 멀리 떨어져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뜻으로 이웃끼리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것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 진정한 벗은 어려운 때 안다

## 조선속담 (사랑)

참다운 우정은 어려운 때에 진실하게 드러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친구는 옛친구가 좋고 웃은 새웃이 좋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

이 두렵고 깊어서 좋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집이나 재물보다도 이웃을 잘 사귀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것이 더 중요함을 이

르는 말.  
-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식이 여럿이라도 부모에게는 어느 하나 귀엽지 않은 자식이란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

## § 유모아 § 숨쉬는 방법

손님이 꼭 들어찬 버스안에서 한 여자손님이 차장에게 말하였다.  
《이거야 콩나물시루같아서 어디 숨이나 쉬겠어요? 우리가 숨을 쉴수 있게 당신이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세요.》  
《부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 둘 하고 구령을 치겠습니다. 하나 하고 웨칠 때 부인들은 숨을 들이쉬고 남자들은 숨을 내쉬십시오. 내가 둘 하고 웨칠 때에는 서로 바꾸어 숨을 쉬십시오.》  
\* \* \*



# 날씨예보와 함께 근 40년

《순렬아, 기렬아, 조국에 가거들랑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주체48(1959)년 제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이 실현되어 1차로 귀국선에 오르는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아버지는 거듭 당부했다.

그때 당시 10살이었던 류기렬선생은 현재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 예보원으로 일하고 있다.

기상수문국에서 근 40년, 수십년세월 그는 늘 아버지의 당부를 안고살았다. 조국에서 무료교육의 혜택아래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칠 때에도 조국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노력하였다.

목표가 뚜렷해서 그런지 그는 대학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짬시간이면 늘 도서관에서 책속에 파묻혀있었다.

흥미있는 물리의 세계가 그를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던것이다.



류기렬

이 과정에 그는 물리, 수학 등 모든 자연과목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졸업후 기상수문국에 배치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무등 기뻐다.

류기렬선생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날씨예보를 해주어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그가 맡은 수치일기예보는 일기예보에서 핵심기술이라

고 말할수 있었다.

그는 수치일기예보에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형(예보하려는 대기과정을 지배하는 물리적법칙을 일련의 가정과 간단화를 도입하여 표현한 방정식계)을 개발하는 연구조에 망라되어 사업하였다.

그러나 수치일기예보모형을 만드는것은 이론적으로나 수학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

수치일기예보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사업을 심화시켰다.

그러던 어느날 뻘스안에서 우연히 어떤 청년들이 요즘 날씨예보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꼭 자기를 욕하는것만 같았다.

이역에서 온 자기들을 따듯이 품어안아 이끌어준 어머니조국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던 아버지앞에 뿔뿔하지 못하다는 가책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연구사업이 힘들다고 잠시나마 주저앉았던 자기가 민망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끝끝내 유럽의 수치일기예보모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수치일기예보리론,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실정과 조건에 맞는 수치일기예보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수치일기예보모형의 개발은 기상예보에서 정확성과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데서 큰 걸음을 내짚게 하였다.

조국에서는 그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 중국, 타이완 비롯

한 여러 나라들에도 보내주었으며 전국지식인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의 대표로도 내세워주었다.

하기에 일본에서 살고있는 친척이 조국을 방문하였다가 그를 만나보고 그들형제가 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국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있는것을 보니 정말 부럽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량심으로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고 후대들앞에도 뿔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류기렬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 손자들을 거느린 할아버지가 되였지만 지금도 그는 남들의 눈에 쉽게 띄우지 않는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며 삶의 보람을 찾고있다.

공훈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류기렬선생(69살)은 현재 조선기상수문학회 부위원장으로도 사업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류기렬박사의 가정



## 상 식

### 여러가지 질병에 주의해야 할 음식물

- 뇌혈관질환환자는 단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단고기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다. 하지만 뇌혈관질환환자들은 단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환자들은 동맥경화와

고혈압증상도 가지고있는데 원기를 돋우고 몸을 덥게 하는 단고기를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혈관파열로 뇌출혈을 일으킬수 있다.

- 감기에 걸렸을 때 청량음료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식, 시거나 매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 기관지천식에 걸렸을 때에는 꽃가루식료품이나 계, 새우, 준치, 양고기, 시고 매운 음식, 기름튀기, 고

지방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 고혈압병에 걸렸을 때에는 비계, 고추, 고구마, 진한 차나 커피를 금해야 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 콩팥염에 걸렸을 때에는 푸조나 생강, 고추, 후추와 같은 조미료나 양고기, 단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 \* \*



#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의 주민들

얼마전 일요일 아침해살이 채 퍼지기 전에 사리원시에 도착한 우리는 중국에서 살고있는 흥설화동포의 조카 리정철의 집이 있는 영광동부터 찾았다.

리정철의 집으로 가던 우리는 특색있는 꽃장식들과 꽃밭들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키낮은 울바자형식의 대형 화분들에 피어난 씨네라리아, 만수국과 같은 꽃들이 거리의 풍치를 이채롭게 하여주고 있었으며 살림집베란다들에 여러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난 화분들이 놓여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우리가 살림집구획을 지나가며 보느라

니 아파트들의 앞마당에도 꽃밭들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화초들이 싹을 내밀고 아침해빛을 반기고있었다.

우리는 꽃밭에 물을 주는 녀인들속에 어울려있던 사무장 채성일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영광동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는데 최근년간에는 온 사리원시가 꽃의 도시로 변모되어가고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사무장은 동의 주민들은 꽃가꾸기에서만이 아니라 위생문화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고 하면서 동일군들이 3월과 4월, 9월과 10월에 동안의 위생문화실태를 구체

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꾸리기목표와 방향을 바로 세우고 조직집행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고 말하는 것이였다. 이와 함께 동에서는 모범적인 인민반과 세대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었다.

우리는 동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한창 잔디밭을 손질하고 있던 리정철을 만나게 되었다.

리정철에게 우리가 취재 목적을 알려주자 그는 몹시 반가와하며 마침 휴식

일이라 시간이 있으니 자기가 우리를 안내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였다.

그는 영광동안에는 황해북도 산원, 사리원시주일탁아소, 황해북도도서관, 사리원백화점 등이 훌륭히 서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먼저 사리원시주일탁아소로 이끌었다.

탁아소 앞마당 한편에는 울긋불긋 꽃으로 단장된 봄철의 경암산을 그대

사, 칠면조사였다. 뿐만아니라 뒤마당에는 한겨울에도 양배추, 오이, 도마도를 수확한다는 무난방온실, 남새밭, 돼지사, 미꾸라지서



리정철의 가정에서

황해북도도서관과 사리원백화점을 돌아본 후 시안의 매 가정들에 맛있는 기초식품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는 정방산식료공장에 들린 우리는 주위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꾸려야 사업에서도 높은 실적을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한낮이 되어 우리가 리정철의 집이 있는 35인민반앞에 이르니 한여름이면 잎이 무성해질 정자나무아래서 로인들과 함께 웃놀이를 하던 인민반장 강옥순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거리에는 물론 이렇게 살림집들주변에도 나무를 심으니 주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사리원시 영광동에서 보낸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송이의 꽃, 한그루의 나무를 보면서도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자기 손으로 알뜰하게 꾸려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이곳 주민들의 마음속에 깃든 애국심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사리원시주일탁아소의 어린이들

식장까지 있었는데 이곳 보육원들의 깐진 일숨씨가 엿보이였다.

소장 김경숙은 자기의 일터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다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보육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탁아소의 내외부를 꾸리고 물질적 토대까지 그쯘히 갖추어놓으니 보육교양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황해북도산원을 찾은 우리는 깨끗하게 꾸려진 산과, 애기과, 유선종양과의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을 돌아보며 여러 환자들로부터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뿐아니라 그들이 가꾼 창가의 아름다운 꽃들도 자기들의 건강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사리원백화점에서

로 옮겨온듯 한 꽃동산이 있었고 다른곳에는 꽃망울을 한껏 문 앵두나무며 키낮은사과나무 등이 서있었으며 왕다래 나무들에는 파아란 순들이 얼굴을 내밀고있었다. 여러가지 미끄럼대와 그네 등에는 벌써 어린이들이 매달려 깔깔거리고있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낸것은 금잉어, 붕어, 초어와 같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노니는 양어장과 평사, 사슴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려간다.





중국 길림성 송원시 부여현 박점식형님 앞

## 그리운 형님에게

형님,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내가 친척방문으로 길림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조국에 온 형님을 만나 회포를 나눈것도 어 제런듯싶은데 왜 그런지 형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보면 나이가 들수록 세월도 한창나이때보 다는 더 빨리 흘러갈뿐아니라 혈육의 정 역시 더 짙어지는것만 같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형님의 건강은 어떠한 지 몹시 궁금합니다. 누님과 동생들도 별고없이 잘 지내고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다 잘 있습니다. 나도 건강합니다. 형님이 나에게 말한것처럼 약보다 운동이 좋습니다. 집사람도 건강한 몸으로 자식들의 뒤바라지와 크고작은 가사를 다 돌보고있는데 그 사람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은 크게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둘째아들 영태는 여전히 평안남도대흥관리국의 수산사업소에서 어로공으로 일하고있고 셋째아 들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로동자로 일 하고있습니다. 참, 그 애가 얼마전 새 집을 받았 습니다. 그래 우리 랑주가 아들네 새 집도 꾸 러줄겸 며칠간 가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같이 일하면서 원격교육대 학공부를 하고있는데 모두 학과실력이 괜찮은것 같습니다. 대학선생님들도 그렇고 함께 공부하 는 동무들도 칭찬합니다.

형님, 가정에 대학생이 늘어나니 얼마나 좋은

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들은 명절이라든가 일요일,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집에 찾아오곤 하는데 의례히 형님께 게서 온 편지들과 가족사진들을 보며 형님께 이 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느라 나에게는 중국 에서 흘러간 소학교시절이 돌이켜지곤 합니다.

형님도 알겠지만 그때 나는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어서 학생대장으로 선출되어 사업하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달리 뛰어나 그렇게 될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국땅에서 조선사람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마음에 서였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려고 형님은 애를 많이도 썼습니다.

이제는 그때로부터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 러건만 그 모든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기 억되고있으니 추억이란 얼마나 소중한니까.

그 소중한것이 나에겐 사랑이라고 생각됩니 다. 그것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 습니까. 형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기에 형님은 자식들에게 선조들이 묻혀있는 고향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조국도 자주 찾는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나는 형님이 헤어지면서 우리 비록 멀 리 떨어져 살지만 언제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조국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애국사업에 헌신 해가자고 하던 당부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래 형님의 부락을 안고 자식들을 교양하고 나자신 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 습니다.

형님, 조국에 와서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상봉의 자리도 마련해보고싶 은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조 국에 한번 꼭 오기 바랍니다.

그럼 상봉의 그날까지 건강에 류의해 주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온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평안남도 문덕군 문덕읍 115인민반 박점식동생으로부터



## 인상기

# 수요가 대단히 높을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민족은 김 치를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 는것으로 여기어왔다.

김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관 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번 조국방문기간 나는 류경 김치공장을 참관하게 되었다.

이 공장의 녀성지배인이 우리 를 직접 안내하였다.

우리는 그의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며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 춘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고 시원하고 쟁한 류경김치도 맛보 았다.

통배추김치, 깍두기, 어린이 영양김치, 총각김치, 양배추김 치, 오이김치, 동치미를 비롯한 김치들과 흰곤봉버섯장절임, 느 타리버섯장절임 등은 너무도 먹

음직스러워 그 맛을 보지 않고서 는 정말 못 견딜것 같았다.

그가운데서 어린이영양김치라 는 이름이 귀에 설어 나는 지 배인에게 제품에 대해 물어보 았다.

지배인은 어린이영양김치는 공장에서 새롭게 만든 제품인데 호두나 다시마를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오드와 미량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면서 젊 은 가정부인들속에서 수요가 대 단히 높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대번에 어 린이영양김치를 우리 자식들에 게 꼭 맛보이고싶은 생각이 들었 다. 그래 류경김치를 몇봉지 사 갈수 있겠는가고 물어보았더니 평양시안의 곳곳에 세워진 김치

매대에서 여러가지 김치를 판매 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나는 류경김치를 인민들의 기 호와 요구에 맞는 식품으로, 인 민들이 인정하고 선찬으로 찾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기 위 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이 공 장종업원들의 일본새에서 나날 이 눈부시게 비약하는 조국의 래일을 보게 되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료녕지구 지부장 리훈

## 마음만은 늙지 않았다



적이 없다.

눈을 감기 전에 조국에 가보 고싶던 소원을 이렇게 풀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나는 얼마전 딸 리지야가 조 국에 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 마 치 내가 가거나 하는것처럼 흥 분되어 며칠밤을 뜬눈으로 새웠 다. 어릴적에 부모형제와 함께 떠나온 나의 고향땅이 더욱 보고 싶었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있 을 혈육들도 만나고싶었다.

나는 생각끝에 딸과 함께 조 국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사위, 손자, 손녀들이 90고령 의 몸으로 어떻게 비행기를 타 겠는가고 하면서 만류해나설 때

나는 비록 육체는 로쇠해도 마 음만은 늙지 않았노라고 말해주 었다.

나는 조국사람들의 극진한 보 살핌속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모 르고 조국의 여러곳을 방문하였 으며 친척들과도 상봉하였다.

이번에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우리 대표단성원들이 미림승마 구락부에서 승마를 하면서 즐거 운 시간을 보낼 때 말을 타보지 못한것이다.

조국을 그리워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생의 마지 막순간까지 변함이 없을것이다.

로씨야 캄차뜨카주 김계월



# 어머니조국은 기억하고있다

이번 조국방문기간 나는 우리 재중조선인총련 합회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을 참 관하였다.

나는 지난 시기에 여러번 조선혁명박물관을 참 관하였지만 이곳에 해외동포관이 개관된 후로는 처음이다.

4개의 호실로 되어있는 해외동포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따듯한 보살피심속에 해외교포운동이 강화발전되어온데 대한 사진문헌



들과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나는 강사의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며 조선혁명의 전 력사속에 자랑스러운 한페지를 새기고있는 해외교포운동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 찬란한 혁명업적과 더불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음을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참관을 이어가던 나는 한상의 낮익은 사진문헌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1(1992)년 8월 제3차 범민족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이 었다.

우러를수록 뚫어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그 사진의 두번째 줄에 바로 내가 있었던것이다.

조선혁명의 발전로정과 앞으로 걸어갈 행로가 눈앞에 선히 보이는 조선혁명박물관에 해외공민인 나의 모습도 있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국에서는 재중동포청년인 나를 조국에서 진행되는 범민족대회 대표로 불러주었고 조국통일 운동에서 해외의 청년들도 앞장에 서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애국적이며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인 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주체79(1990)년 11월 20일]}이 결성되도록 이끄시였고 이 성스러운 사업에 동포들모두가 앞장에 서도록 적극 내세워주시었다.

그때부터 범민족적인 통일추진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민족의 통일열망과 의지가 내외에 힘있게 과시되었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범민련결성후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은 해마다 조국해방의 날인 8월 15일을 계기로 평양과 관문점, 서울과 도교 등에 모여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의 열기를 높여나갔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아 해외동포들도 그 수를 헤아릴수 없지만 전진하는 조국의 력사와 함께 자랑찬 길을 걸어온 해외교포운동은 아마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것이다.

나라일에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조국과 한 피줄을 잇고 사는 해외동포들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조국에서 진행되는 중요행사들에 꼭꼭 불러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다는 철리를 가슴에 새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오는 해외동포들의 자그마한 애국적소행도 어머니조국은 언제나 기억하고있는데 대하여 나는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은 후손만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재부로 길이 빛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애국의 삶 또한 값높이 조국청사에 새겨지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해외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 애국충정의 본태를 잃지 않고 조국과 더불어 해외공민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빛내어나가겠다.

그날 나는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을 그대로 안고 조국을 위한 모든 일에 이 한몸 다 바쳐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을 나섰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류창환

# 미래재산이 될 교육현장들

나는 북녘의 유치원과 소학교, 초, 고급중학교 등 교육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북부조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교원들의 의식구조와 이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수 있었다.

초, 중,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인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것을 목격했다. 이들이 말하는 조선은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자기 사회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나라를 의미하는것으로 파악했다.

기자는 평양시내에 있는 경상유치원과 평양제1중학교의 교육시설들을 돌아보고 이와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는 소학생들과 중학생들뿐아니라 원장, 교장, 부교장 등 교원들을 만나 이들의 교육현황을 알아보았다.

평양시 각 지역에는 동마다 유치원이 설립되어있었다.

경상유치원은 1954년에 개원되어 1979년에 음악적재능과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유치원으로 되었다. 4층건물에 130개의 방, 5~6살짜리 어린이들이 이 유치원에 재학중이다. 유치원생들은 모두 당당했다. 선생님이 그 무엇을 질문해도 큰소리로 대답한다. 이들을 위한 예능교육도 철저하다. 피아노를 비롯하여 각종 악기를 배우는 어린이들도 있고 노래하는 어린이들, 무용을 배우는 어린이들 등 다양하다.

이들 어린이들은 언제나 나라가 마련해준 무료교육을 통하여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예능도 배우고있다. 이들은 그 누구

나 할것없이 이 나라의 령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키운다. 유치원입구 건물웃쪽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씌여있다.

평양제1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과 부교장의 안내에 의해 시설들을 돌아보고 교실에서 학생들의 수업분위기와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들 중학교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 하나가 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들의 마음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이 학교에는 소학교학생, 중학교학생 총 1300여명정도의 학생이 재학하고있다. 10층건물에 수업교실들과 전시관들, 실험실 등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다.

조선어, 혁명력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선택과목 및 컴퓨터 등 다양한 과목들이 이들이 공부하는 분야이다.

중학교시기에 학생들은 이미 줄기세포에 대해 공부한다. 영어공부는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참고하고있었고 선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100% 영어로 말하며 학습하고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1985년부터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는데 북도 한 곳에는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 전국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재학생들의 이름과 소속이 소개되어있었다.

유치원, 소학교, 초,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눈동자들에서도 학업에 대한 집념이 강하게 빛

나는것들을 볼수 있었지만 학교 분위기가 온통 애국자들을 키워내는 애국청소년양성전당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들을 담당하는 교장, 부교장, 유치원원장 및 교원들의 말과 자세에서도 그들 자신이 하나같이 애국자들이라는것을 관찰할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기존11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로 확장하기로 결정한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교육을 우선정책으로 내세웠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고 본다.

내가 방문한 경상유치원에도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여러차례나 현지도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령도자가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는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북녘의 교육기관들과 학생들을 만나보고 많은것을 생각했다.

남이 북과 힘을 합쳐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해왔다면 남의 나라 과학기술을 엄청난 돈을 들여 빌려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방북을 통해서도 하루속히 북과 남이 손을 잡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명기된 그대로만 실천하고 서로 돕기만 한다면 북, 남, 해외 온 겨레는 그 야말로 세계에서 훌륭한 민족으로 존경받는 대상이 될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민족통신》대표 로길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 경축 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태양절을 맞으며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은 동포들

## 이역땅에 뿜어낸 천홍모의 열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흠모하는 겨레의 마음은 지경너머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가슴속에서도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중국과 로씨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있

는 해외동포조직들에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해외동포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가는 중국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태양절경축행사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축



행사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산하조직대표들, 동포예술인들, 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 일군들, 길림시에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경축행사에는 중국 길림성인민정부 외사관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중국정부의 일군들도 함께 참가하였다.

먼저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



태양절경축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짜고드는 동포들







태양절경축 룡녕 지구협회 결의편지 채택모임이 진행되었다.



《백두-한나》잡지의 성과적발행을 위해



민속놀이로 흥을 돋구는 동포들



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재중동포들은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차상보부의장은 보고에서 먼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강조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속에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운의 날이며 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오게 한 경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정녕 주체조선의 락월한 수령,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토로하였다.

보고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영화감상회도 진행되었다.



와 자부심을 안고 그이의 령도따라 재중조선인운동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한 재중동포들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사진 및 도서 전시회장들을 뜨거운 걱정속에 돌아보았다.

길림, 연길, 장춘 등 중국의 각지에서 모여 온 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한 경축공연에서는 녀성독창과 기악 《강선의 노을》, 남성민요독창 《오늘의 창성》, 녀성민요독창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를 비롯한 작품들로 무대를 뜻깊게 장식하였다.



예술공연도 진행되었다.





#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7)

- 심원사 -

평안북도 박천군에는 심원사도 있습니다.

심원사비문에 의하면 이 절간을 처음 세운것은 9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8년에도 이전에 있던 건물들을 고쳐 지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원사에는 현재 중심건물인 보광전과 전등루, 향로각이 남아있습니다.

년대가 가장 오래된 중심건물인 보광전은 고려건축양식을 적지 않게 보여주고있어 고려때의 건축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습니다. 보광전은 정면 3칸(10.85m), 측면 2칸

(7.2m)의 단층합각식건물입니다. 기둥은 모두 배부른기둥입니다.

보광전은 고려때의 절간건물로서 천정장식이 매우 화려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광전의 정면에는 문살대신련꽃, 모란, 매화, 국화 등을 뿜어새긴 화려한 꽃살문짝을 5개 해달았습니다. 이것은 기둥우의 룡, 봉황새조각과 함께 당시의 훌륭한 목조각술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건물의 안팎에는 화려한 금단청을 입혔는데 붉은색과 누런색은 적게 쓰고 청록색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룡의 비늘에 금박을 칠한것 등은 고려시기에 유행된 단청수법입니다.

보광전에 룡, 봉황새 등 각종 조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등루는 정면 5칸(14.63m),

측면 3칸(7.32m)의 2익공겹처마합각집입니다.

구조조형적요구를 잘 타산하면서 기둥을 배치하고 두공을 재치있게 높이 짜올렸으며 조각을 섬세하게 한것 등은 당시의 훌륭한 건축술과 조각술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일부 조각장식들은 조선봉건왕조시기때에 보충한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천정을 소란반자로 꾸민것 등은 고려건축의 새로운 경향성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심히 파괴되었던 이 절간은 조선로동당의 문화유물보존정책에 의하여 전후 원상대로 복구되어 잘 보존관리되고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솔미



보서리두공



정방산성의 성불사에서 마주 바라보노라면 거북형제봉중턱의 아스라한 벼랑바위우에 탐처럼 쌓아올린 돌무지 하나가 보인다.

장송이만 하게 정히 다듬은 돌들을 돌기돌기 쌓아올린 류다른 돌탑...

그 개개의 돌들마다에는 과연 어떤 사연들이 깃들어있는지...

1592년 초여름 어느날 이른새벽녘이었다.

침침한 어둠과 쥐죽은듯 괴괴한 정적만이 휩싸인 적막산천에 기신없이 늘어져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정방산일대에서 투석군으로 유명짜한 능지마을의 석칠복이었다.

칠복은 지난밤 동선령에 등지를 튼 왜적군영에서 도망쳐온 몸이었다.

칠복은 마을의 부자인 류자림의 열두고간에 쌓여있던 식량을 몇몇 작인들과 함께 옹근 이레 밤이나 새워가며 진틀이 고개 근처에 감추어 놓고 류자림의 집 사랑채에서 깊은 잠에 푹아 떨어졌었다.

그러다가 재밤중에 류자림에게 불리워나가 낮모를 사나이들의 뒤를 따라 왜적군영에까지 간것이었다.

칠복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사실 석칠복은 엇그제 벌써 정방산성에 들어갔어야 할 몸이었다.

도처에서 왜적들을 때려잡기 위한 의병부대가 무어지는 속에 정방산성으로도 손에 나름대로의 병쟁기를 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을묘왜변때 재령강을 따라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왜적들과 싸우는 군사들을 돕다 죽은 아버지, 그래서 고향사람들이 시신도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정방산의 벼랑바위우에 있는 돌탑에 돌 하나를 정히 다듬어 놓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칠복도 정방산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웃에 사는 늙은이에게 앓는 안해를 부탁하고 칠복이 막 성으로 떠나려는데 뜻밖에도 류자림이 불쑥 나타났던것이었다.

칠복은 정방산주변의 손바닥만 한 땅땸기도 제것으로 만들지 않고는 못 배기는 류자림의 속심을 잘 알고는 그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다. 하지만 앓는 안해에게 죽 한사발 변변히 끓여줄 수 없었던지라 쌀말이나 약재들을 내놓으며 구

슬리는 류자림의 선심을 선뜻 물리치지 못하고 따라나서군 하였다.

이날도 바로 그런 연고로 칠복을 찾아온 류자림이었다.

그런데 그 류자림이 왜적들에게 코뎀 송아지처럼 따라나섰을줄이야...

칠복은 왜적들에게 식량을 가져다주자고 하는 류자림의 목덜미를 틀어잡고 그를 내동미쳤다.

그리고 왜적들에게 돌을 날리며 도망쳤다.

그렇게 얼마쯤 달리다가 쓰러졌던 칠복은 멀리서 들려오는 류다른 인적기에 정신을 차렸다. 거세한 수태지처럼 살찐 류자림이 왜적들에게 떠박질리워 비칠대며 식량을 가지러 진틀이 고개로 가는 길잡이노릇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칠복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안된다. 이 땅에 나라를 사랑하고 고향을 지켜 왜적들과 사생결단할 백성들이 살아숨쉬는 한 처 왜적들에게 한알의 낱알과 한모금의 물이라도 그냥 내어줄수 없다.

칠복은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왜적들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리고 류자림에게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지만 진짜 개보다 못한것이 바로 지금 살아숨쉬는 내 목숨이다.》 하고 웨치며 그에게 돌을 날렸다.

순간에 길잡이를 잃어버리자 왜적들이 이리떼처럼 칠복에게로 달려들었다.

칠복은 련이어 돌을 날렸다.

이어 그의 손에 돌이 한개밖에 남지 않았다. 안타깝게 돌을 찾던 그의 눈에 정방산의 유명한 돌탑이 안겨왔다.

그 돌들에는 이 정방산을 지켜싸운 사람들의 령혼이 깃들어있었다.

칠복은 왜적들이 다가오자 미처 어쩔새 없이 돌덩이처럼 날아가 앞선 왜적 두명을 거머쥐고 벼랑바위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그때 놓여진 차돌우에 수많은 돌들이 놓여졌다.

안고있는 사연 서로 다르고 놓여진 년대들이 각각이어도 고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이름없는 백성들의 넓은 애국이라는 하나의 부름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 \* \*



##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과학기술 (2)

조선봉건왕조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무기제작기술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것이다.

1409년에 최무선(1326년-1395년)의 아들인 최해산은 일종의 장갑차인 화차를 만들었다. 1444년에는 성능이 높은 화포들을 만들었는데 그전의 포들에 비하여 화약을 적게 쓰면서도 포알을 더 멀리 날려보낼수 있었다.

1445년경에 완구포, 일총통 등 16가지 우수한 화약무기들이 제작되었다. 특히 임진조국전쟁시기에 무기제작기술이 한층 발전하였는데 그가운데서 유명한것은 비격진천뢰와 비거였다. 비격진천뢰는 신관장치가 달려있는 일종의 시한탄이였으며 비거는 군사통신연락수단으로 리용된 활공기였다.

이 시기 또한 우수한 싸움배들이 창안제작되었다.

15세기에 고려시기의 우수한 배무이기술을 계승발전시켜 적의 배를 추격하는 기동성이 빠른 비거도선을 비롯하여 배전에 창검들을 한줄로 꽂은 검선, 갑판우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싸움배로도 쓰고 조세운반선으로도 쓰는 병조선 등 여러가지 함선들이 만들어졌으며 룬선이 건조되었다.

거북선이 창안된것은 싸움배건조에서 이룩된 특출한 성과였다. 1413년 거북선을 만들어 림진강에서 성능을 시험하였고 애국명장 리순신은 인민들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독특하고 위력있는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완성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수군이 해전에서 언제나 적을 피동에 몰아넣고 승리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거북선을 선봉으로 하여 싸운데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지리학분야에서 성과가 달성된것이다.

조선봉건왕조 초기부터 지리지편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432년에 《팔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되었다. 특히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그후 1530년에 그것을 보충완성하여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당시를 대표하는 역사지리에 관한 대작

으로 된다.

지도제작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었다. 15세기에 《조선팔도도》, 《동국지도》와 같은 우리 나라 지도들이 작성되었다. 또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천하도》와 같은 세계지도가 작성되었다. 17세기-19세기 실학의 발생, 발전과 함께 지리학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대표적인것으로는 종래의 성과들을 개괄하고 새로운 자료들로 내용을 풍부히 한 인문지리학저서 《택리지》를 들수 있다. 한편 지도의 제작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18세기 중엽의 《팔도도》에 이어 19세기 중엽에는 김정호에 의하여 《대동여지도》가 제작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실측자료에 기초하여 만들어진것으로서 내용의 정확성과 도면구성의 과학성에 있어서 당시까지 우리 선조들이 지도제작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집대성한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농업기술, 방직 및 염색기술, 요업기술, 광업 및 금속가공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경종법과 육종기술이 발전하고 알곡품종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농기구, 판개수리용기구들이 개선되고 축산, 잠업기술이 발전하였다. 특히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고구마, 감자, 강냉이, 고추, 담배 등 새로운 작물들이 도입되어 전반적인 농업생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 무명, 베, 모시천을 생산하기 위한 방직기술과 함께 요업기술도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광업 및 금속가공기술도 발전하였는데 금생산방법에는 광석에서 금을 뽑아내는 청화법과 사금을 채취하는 도사련금법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에 자랑할만 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주성철

민족의 향기

## 평양의 특산 - 대동강숭어국

동포여러분, 이번호에는 아름다운 대동강의 이름과 더불어 유명한 숭어국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숭어는 바다기슭이나 덜 짠 강어구에서 많이 사는 물고기입니다.

대동강어구는 예로부터 4월이면 《죽었던 숭어가 대동강에 살아 온다.》는 말까지 전해내려올 정도로 숭어의 좋은 살이러로 손꼽히고있습니다.

숭어라는 이름의 어원은 수어였습니다. 맛이 제일 좋은 물고기라는 뜻으로 《빠여날 수》자를 쓴것이었던것입니다.

그럼 수어에 대한 력사이야기부터 먼저 펴볼가 합니다.

어느때인지 딱히 알수는 없지만 옛날 한 중국사신이 우리 나라에 와서 숭어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참 좋다고 연방 감탄하다가 곁에 있는 통역에게 《이게 무슨 물고기인가?》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통역은 숭어 음식을 만든 조선사람에게 물어보고 제격 《수어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신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물에서 사는것이 하도 많은데 하필 이 물고기만을 수어라치게 있소? 그러면 물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수어라고 해야 할것이 아니요?》

사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통역을 한다는 사람이 조선사람들이 수어라고 부르는것을 음이 같은 《빠여날 수》자와 《물 수》자를 분간하지 못하였던것입니다.

이 길지 않은 력사이야기 하나

를 통해서도 우리는 숭어가 예로부터 우리 나라 명산물로 알려진 맛있는 물고기라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숭어에는 단백질이 20.6%, 기름이 4.3%, 당질이 0.8%정도 들어있으며 칼슘, 린, 철, 비타민 A, B, PP도 많으므로 뒤맛이 깨끗하고 소화가 잘됩니다.

숭어국은 찬물을 두고 끓인다고 하여 일명 숭어랭수탕이라고도 불리워지고있는데 평양사람들은 오랜 식생활체험을 통하여 숭어토막을 찬물에 넣고 천에 싼 통후추알과 함께 끓여야 자기의 고유한 맛을 낸다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대동강숭어국이라는것은 대동강의 숭어를 잡아 대동강의 맑은 물로 끓여 만든 국을 말합니다.

그럼 평양의 4대음식의 하나인 유명한 대동강숭어국을 끓이는 방법을 보기로 합시다.

물이 좋은 숭어의 비늘을 벗기고 깨끗이 손질하여 보기 좋게 토막냅니다.

다음 숭어토막을 료리용천에 싼 통후추 여러문알과 함께 찬물이 들어있는 가마에 넣고 살고기가 익을 때까지 푹 끓입니다. 숭어는 기름진 물고기이므로 푹 끓이면 국물에 누린 기름이 많이 뜹니다. 다음 국물의 간을 맞춘 후 사발에 국물을 퍼담고 숭어토막을 놓으면 아주 구수한 맛이 나는 숭어국이 완성됩니다. 숭어국은 흰쌀밥과 함께 김치 그리고 양념그릇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담아 곁들어 냅니다.



숭어국의 독특한 맛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쇠가마보다 돌가마에 넣고 끓이는것이 더 좋습니다.

동포여러분,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면 평양의 명물로 소문난 대동강숭어국을 대접하는것으로 레의를 지키었으며 평양에 온 사람들은 그들대로 숭어국을 맛보아야 룡송한 대접을 받은것으로 여기었다고 합니다. 하여 평양을 다녀온 사람을 만나서 하는 첫 인사말이 《숭어국맛이 좋은가.》였다고 합니다.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숭어국집에서는 숭어랭수탕을 비롯하여 숭어매운탕, 숭어튀기 등 숭어료를 전문으로 봉사하여주고있습니다.

조선식합각지붕을 머리에 얹은 평양숭어국집은 멀리서 보면 마치도 대동강에 발을 잠그고 서있는듯 한 감이 느껴지게 강기슭에 여러개의 큰 기둥을 박고 그우에 건물이 세워져있습니다. 평양숭어국집의 식탁을 마주하고 앉으면 푸른 물결 출렁이는 대동강과 주변경치가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져 숭어료를 맛보는 손님들의 기분이 더 한층 흥그러워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조국에 오시면 평양숭어국집에서 숭어랭수탕을 꼭 맛보십시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 조국의 천연기념물 (17)

황해남도의 천연기념물들에는 또한 배천재두루미와 연안고니, 구월산애기개구리, 오차바위, 종달온천도 있습니다.

**배천재두루미**는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리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배천재두루미는 해마다 10월 말경에 20~30마리의 무리로 역구도리와 그 주변의 넓은 벌에



배천재두루미

날아와 겨울을 나고 다음해 3월 중순경에 북쪽의 번식지로 날아갑니다. 이전에는 역구도리는 작은 섬으로만 되어있던 이곳이 이제는 동쪽으로는 봉화리, 서쪽으로는 추정리와 연결되어 재두루미의 살이터는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이 지대에는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있으며 배천재두루미의 서식에 유리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연안고니**의 살이터는 황해남도 청단군 영산리의 구월반도에서 시작하여 연안군 청화리의 증산도와 화양리의 간석지벌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이곳으로는 수천마리의 고니를 비롯한 수십종의 철새들이 날아오고있습니다.

고니들은 10월말에 날아와 겨울나이를 하고 다음해 3월에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구월산애기개구리**의 살이터는 황해남도 은률군소재지에서 약 10km 떨어진 원평리소재지에 있습니다.

이 살이터는 북동쪽으로는 구월산, 남서쪽으로는 먹산, 북



연안고니

서쪽으로는 산동리, 남동쪽으로는 고개넘어 삼천군 도명리와 잇닿아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늪과 작은 개울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하여 애기개구리들이 많이 번식하고있습니다.

**오차바위**는 황해남도 룡연군 룡연읍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몽금포의 남서부연안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기암절벽을 이루고 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서로 키돋움하며 바다의 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습니다.

바위의 높이는 12~15m이고 밑둘레는 10m이며 규칙적인 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바다가슥에는 높이가 10~30m에 달하는 벼랑들이 늘어서있습니다.

오차바위는 중부원생대 직현군층의 규암이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진귀한 바위로서 학술적의의가 크며 조선서해안에서도 보기 드문 천연기념물입니다.

**종달온천**은 황해남도 삼천군 삼천읍에서 북서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달천리에 있습니다. 온천은 1400년경에 구월산 화전민들이 더운물줄기를 발견



구월산애기개구리



오차바위

하여 우물을 파고 리용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날 다리부러진 종달새가 이 온천물에서 목욕을 하였는데 그후 달반이 지나 다리가 나아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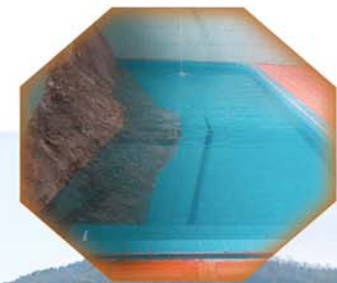
이때부터 이 온천을 종달온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온천구역의 년평균기온은 10.2℃이며 년평균강수량은 972.1mm입니다.

온천물은 단층파쇄대를 따라서 여러곳에서 솟아나오며 그

성분들은 서로 비슷합니다. 주요이온성분은 염소이온, 수소탄산이온, 탄산이온, 류산이온입니다. 온천물의 온도는 43~51℃이며 알카리성(pH 8.6)을 띠고 있습니다. 종달온천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천연기념물로서 적극 리용되고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종달온천



력사인물

## 《천수사남문도》와 리녕

《천수사남문도》는 개성지방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고려의 대표적인 풍경화가인 리녕의 이름과 함께 일화로 전해지고있다.

리녕은 높은 회화적재능으로 하여 그의 이름은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그의 작품은 전해지지 않으나 《고려사》를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에도 그의 창작활동에 대한 자료와 여러가지 일화가 올라있다.

아래에 몇가지 일화를 전한다.

1124년 9월 추밀사 리자덕을 따라 송나라에 갔던 리녕이 《례성강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본 이 나라 왕 휘종은 크게 탄복하여 명수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왕은 여러 화가들에게 리녕의 그림을 보여주고나서 그의 화법을 배우도록 하였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상인이 고려왕 인종에게 송나라의 명화라고 하면서 《천수사남문도》를 선물한 일이 있었다. 인종은 그림이 과연 잘되었다고 탄복하며 리녕에게도 보여주었다. 리녕은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던것이다. 리녕은 왕에게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말하였다. 왕은 곧이듣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그림의 배접한 뒤종이를 뜯어 자기의 수표를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인종은 리녕을 더욱 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나라에서 그림그리는 일은 모두 그가 주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 \* \*



#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

지금으로부터 68년전인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평화로운 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인류력사에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크고작은 전쟁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지만 미국이 일으킨 조선침략전쟁과 같이 가장 야수적이고 파괴적인 살륙전쟁은 일찌기 없었다.

조선전쟁을 일으킨 첫 시기에 미제침략군 8군사령관 위커는 자기 병사들에게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며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조선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생각하라. 짐승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은 가는 곳마

다에서 조선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만도 50여 일동안에 군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5 38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신천군뿐아니라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에서 미제는 조선사람사냥에 그 악명을 남김없이 떨치었다. 미제침략군은 재령군과 름산군, 안악군, 리원군, 금야군, 벽성군, 해주시와 사리원시 등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다치는대로 쏘아죽이고 불태워죽이고 물에 처넣어죽이였다.

미제침략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삶의 터전과 재산을 마구 파괴략탈함으로써 생존권마저 악랄하게 유린말살하였다.

침략자들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북조선에 쓸어도 걸리는것이 없게 하겠다.》고 떠벌이면서

대대적이며 무차별적인 《초토화작전》을 벌리였다.

당시 미제는 평양에 만도 1 400여회에 걸쳐 428 0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한것을 비롯하여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근 60만t의 폭탄을 떨구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제가 조선민족을 멸살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침략자들의 무차별적인 만행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살림집, 각급 학교, 병원과 진료소, 극장 및 영화관들도 무수히 파괴되었으며 농경지들이 황폐화되어 수만정보나 줄어들었다.

미제침략군은 공화국 각지의 크고작은 철길다리와 기차굴, 다리과 항구들도 다치는대로 끊어놓고 파괴하였다. 살륙과 파괴에 이골이 난 침략자들은 옛 절간들과 옛무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 유적들까지도 가차없이 불태우



남조선에 날아들어 북침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딜레스



1950년 6월 25일 미제의 사측 밑에 불의에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는 남조선피뢰군

고 들부셔버리였다.

지어 미제침략군은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나팔탄 등과 함께 송이폭탄의 한 종류인 나비탄까지 대량적으로 사용하여 온 강토를 말그대로 초토화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퍼부은 각종 폭발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적, 물질 및 환경피해를 초래하였을뿐아니라 불발된채로 나라의 산야와 강하천, 가까운 바다에도 수없이 박혀 전쟁시기는 물론 전후 수십년간에 걸쳐 우리민족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였다.

미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워싱턴 프리비컨》은 《미국은 사실상 북조선에 대해 끔찍하고 악한짓을 하였다. 2차세계대전

때 전체 태평양전구에 투하한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북조선에 투하하여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천수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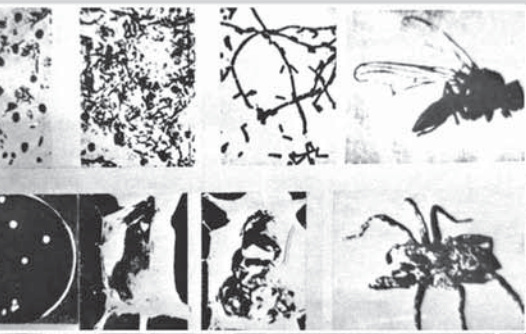
그뿐이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불리한 전쟁형세를 바꾸기 위해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군무기와 화학무기까지도 꺼리낌없이 사용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38°선일대와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세군무기들이 투하되었으며 공화국은 미제의 세군전마당으로, 그 시험장으로 되었다. 미제의 무분별한 생화학무기사용으로 수많은 인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되었으며 생태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었다.

당시 미제의 침략만행을 현지에서 조사한 국제민주여성련맹 조사단은 《미국이 름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름시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폭로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저지른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민간인대학살만행은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들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서 그것은 조선사람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다.

윤학수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수많은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고 도시와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다.





## 6. 15통일시대는 자주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조선반도에서는 극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주체89(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족이 분렬된 때로부터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주체89(2000)년 3월초 백두산 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펼칠 통이 큰 구상과 작전을 하시였다. 백두산에서 무르익히신 구상이 그해 6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이어지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이다. 공동선언발표후 분렬과 대결의 찬바람만 불어치던 삼천리강토에는 온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의 한길로 함께 나아가는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겨레의 가슴마다에 민족자주정신을 심어주고 통일운동을 북과 남, 해외를 망라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되게 하였다.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동족끼리 힘을 합치려는 민족공조의 의지가 세차게 맥박쳤다.

해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동포들이 래왕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고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애국운

동으로 전환되었다.

전민족적인 통일련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당시)가 결성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연합이 더욱 강화되고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반세기 넘도록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오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으로 방향을 바꾸어놓았다.

상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과 남은 공동선언을 리행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협의, 실천하였다.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의 장벽이 해소되고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었으며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희한한 현실도 펼쳐졌다.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과 교류사업도 폭넓게 진행되어 겨레의 가슴에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조선의 명산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원이 풀려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금강산관광길에 올랐다. 북남쌍방의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일대이지만 개성의 넓은 지역에 경제특구가 세워져 그곳이 북남협력과 화해, 통일의 상징으로 되었다.

북과 남, 해외가 모여앉아 민족통일대토론회, 민족통일대추진, 민족통일대회 등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치르는 감격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북남노동자동일대토론회, 북남학자들의 학술토론회, 북남공동자료전시회, 민족웃전시회를 비롯한 계층별접촉과 래왕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우

리 민족끼리리념밑에 전진해온 자욱과 소중한 성과들을 우리 민족은 력사의 추억으로만 되새길 수 없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백두에서 한나까지 다시한번 분출시켜제2의 6.15시대를 열어놓으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로 된다.

70여년에 걸치는 조국의 분렬력사는 삼천리강토를 분렬시킨 외세가 아니라 북과 남이 손을 잡고 자주의 기치따라 나아가갈 때 통일이 오고 평화와 번영이 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사상 류례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긴장완화의 궤도에 들어선데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공화국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통일과 평화번영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공화국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력사의 온갖 역풍을 뚫고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운

## 정치난쟁이의 휘방질

지금으로부터 92년전 일본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저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조선인민을 무참히 살육하였다. 력사에 6.10만세시위투쟁으로 아로새겨진 이 투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26년 4월 25일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이 죽은것을 계기로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은 더욱 격화되었다. 순종의 장례식날인 6월 10일 쌓이고쌓였던 망국의 설음이 폭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시위군중들은 《조선독립만세!》, 《일본군대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이날 시위대렬에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일제군경들은 확대되는 시위투쟁을 진압하려고 발악하였다. 시위군중과 군경들과의 사이에는 치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격노한 시위군중들은 무장한 경관들에게 달려들어 원수들을 맨주먹으로 때려눕혔다. 중무장한 일제군경들과의 격투에서 시위군중 16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00여명이 체포구금되었다.

시위투쟁은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조선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투쟁기세를 파시하였다.

일제는 지난 세기 40여년간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감행한 력사를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일본은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미화분식하면서 외면하고있다.

오히려 조선반도에 평화적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하여 북과 남이 노력하고있는 때에 휘방질을 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하고있다.

최근 아베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북의 미싸일로 인한 국난》이라는 망설을 내돌리며 국민들속에 조선에 대한 공포심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있으며 세계 각지를 뻘뻘대 조조선《압박》과

《제재》에 가담해줄것을 청탁하고있다.

지어 아베는 북과 남이 하나로 된 모습을 전 세계에 파시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장에서까지 공화국에 대한 대결과 적대적양심을 고취하였다. 평창올림픽에서 아베는 《북비핵화》를 떠들며 분위기에 맞지 않게 놀아댔다. 그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북남조선의 대결장으로 만들 흥심밑에 낚아빠진 그 무슨 《최대의 압박》을 웨쳐대며 불쌍사납게 놀아댔다.

올림픽을 앞두고 그는 《성노예문제에 대한 립장을 밝히겠다.》,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제넘은 망발을 웨치며 평화가 아닌 대결의 불씨를 박지 못해 안달아하였다.

아베와 집권세력이 조선의 《위협》을 걸고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있는것은 저들의 정치적야심과 재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

패망(1945년 8월 15일)후 오늘까지 꿈꾸어온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향해 군국주의마차를 몰아갈 야심밖에 없는 아베와 그 세력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는 달갑지 않은것이다.

조선의 《위협》설을 떠들며 《대동아공영권》의 뿌리깊은 야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다, 미국제첨단장비로 《자위대》를 무장시킨다 하며 동분서주해온 일본에게 있어서 지금의 형세를 뒤집어엎고 안보불안을 극대화시키는것이 급선무로 나서고있다.

하기에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을 겨냥한 《종합방공 및 미싸일방어훈련》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리고있는것이다.

동시에 조선의 해외교포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일본은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 평화적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미국상선이 짜준 각본에 따라 국가권력과 우익강패들, 언론기관들을 동원하여 총련조직들과 학교들, 재일동포들에 대한 강제수색과 폭행, 체포 등 전대미문의 파썸적폭거들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조선과 총련에 대한 적대 의식을 조장하여왔다. 망국의 후안무치하고 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수많은 전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창조된 이야기들도 많다.

그중에는 《호박대가리》 이야기도 있다.

주체26(1937)년 6월 보천보 전투와 구시산전투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일제는 라남제19사단소속 함흥74련대의 2천여명의 정규군을 동원하여 토벌에 내몰았다. 일제의 주구인 김석원은 환송놀음을 벌려놓은 함흥역두에서 무공을 호언장담하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떠났다.

하여 간삼봉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질은 안개를 리용하여 간삼봉기슭에 나타난 적을 가까이 접근시킨 다음 불의의 집중사격으로 죽쳐댔다. 첫 타격에서 많은 손실을 당한 적들은 력량을 수습해가지고 다시 공격하여왔으나 대기중에 있던 조선인민

혁명군의 강력한 기관총사격과 수류탄벼락을 맞고 지휘체계까지 마비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쏟아져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드는 적들을 쓸어눅혔다. 적들은 보천보전투와 구시산전투에 이어 간삼봉전투에서도 시체에 시체를 쌓으며

## 야화 《호박대가리》

대부분이 몰살당하였고 몇놈만 겨우 살아났다. 주구인 김석원은 심한 부상을 입고 간신히 도망쳤다.

적들은 이 전투에서 당한 참패를 숨기려고 전투가 벌어진 곳에 인민들이 얼씬 못하게 하였고 1 500여개의 시체에서 머리만 잘라 마대나 나무상자에 넣어서 강제로 동원시킨 농민들이 달구지로 실어나르게 하였다. 그다음 시꺼먼 풍을 친

자동차들이 그 마대와 나무상자들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갔다. 시체들을 화장하는 연기와 냄새때문에 간삼봉지구 농민들은 며칠동안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시체운반에 동원된 일본병사에게 어떤 농민이 시치미를 떼고 《나리, 달구지에 싣고가는게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일본병사는 능청스럽게 《가보짜》라고 대답하였다. 호박이라는 뜻이다.

그러자 농민도 싱글벙글하면서 《가보짜농사가 대풍이군요. 좋은 국거리니 많이들 자시우.》 하고 야유하였다. 그때부터 항간에는 《호박대가리》라는 말이 생겨났다. 인민들은 일본군시체만 보면 《호박대가리》라고 풍자하였다.

《호박대가리》이야기는 일제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솔미

플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본땅에서는 총련결성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유린의 파쇼광풍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휘몰아치고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자리잡고있는 회관에 여러발의 총탄을 판사하는 극악한 테로범죄행위, 경찰당국이 총련도쿄도본부와 총련일군의 집 그리고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래재단을 강제수색한 폭거 등은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전패국의 오명을 쓰고있는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정치난쟁이의 저렬하고 비렬한 궤방질이라고 비난과 조소를 보내고있다.

92년전에 울리었던 6. 10만세의 함성은 오늘 복수의 웨침으로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일봉

## 상식

### 배부른기둥

배부른기둥이란 기둥의 아래, 윗부분직경보다 가운데 부분의 직경이 더 큰 기둥을 말한다.

지난날 여러 지역에서 일부 배부른기둥이 건축물에 쓰이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배부른기둥을 중요한 기둥의 한 유형으로 널리 리용하여왔다.

고구려무덤벽화에서 배부른기둥을 많이 볼수 있으며 고려때의 주요건축물, 조선봉건왕조 초기의 건축물뿐 아니라 중엽의 일부 건축물에서도 볼수 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초, 중엽이후에는 점차 기둥의 윗부분의 직경이 아래부분보다 작은 흘림식기둥이 기둥의 기본유형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배부른기둥이 일정한 시기를 대표하는 기둥유형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의 건축물에 써온 배부른기둥은 배부른 정도에 따라 배부른기둥, 약간 배부른기둥으로 구분된다. 붉은 색깔을 띠고 힘을 함뿍 받은듯이 만들어진 배부른기둥은 우리 나라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 \*



조선의 관광

## 웃음과 탄성, 아쉬움속에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금릉운동관은 조국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의 하나이다.

사격장과 기재운동실, 룰운동실과 물놀이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는 운동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정면으로는 푸른 배경관이 펼쳐져있고 바닥에는 인공잔디가 깔려있어 실내에서 사격하는 감을 전혀 주지 않는 사격장에서는 명중의 기쁨과 함께 목표를 맞히지 못한 아쉬움이 교차되어 흐른다.

2층에 자리잡은 룰운동실에서는 흥겨운 음악에 박자를 맞추어 룰운동을 할수 있으며 기재운동실에서는 구간, 아령 등의 기재를 다루며 힘키우기운동도 할수 있다.

체육장기로 불리우는 스퀘쉬운동을 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젊은이들은 물론 중년기와 로년기사람들도 좋아한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평양방문기회에 이곳에 들러보면 그 진맛을 한껏 느낄 것이다.

\* \* \*







묘향산 불영대의 두봉화      본사기자 최유성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하며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묘향산,

높고낮은 산들마다에 펼쳐진 길은 록음속에 두봉화마저 활짝 피어  
불영대의 이채로움을 더해주고있다.